

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



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농업인께서는 병해충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,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 정보는 <http://www.ares.gangwon.kr>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-

중점 방제대상 병해충

벼 이삭도열병, 콩 노린재류(예보)

- 중만생종과 동해안 2모작 벼 이삭도열병 발생 우려, 보완방제 추진
- 콩 노린재류 성충과 약충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로 2차방제 실시

김장채소 벼룩잎벌레, 무름병(예보)

- 신선한 기후에 적합한 작목으로 9월 상중순 병해충 관리가 가장 중요
-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, 포장위생관리로 병 발생을 줄이고 해충 예찰철저

고추 탄저병, 나방류(예보)

- 8월중 잦은 강우로 탄저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침투이행성 약제로 방제
- 담배나방·파밤나방 등 나방류 해충발생 포장은 즉시 방제

과수 주요병해충, 돌발해충(예보)

- 포도 갈색무늬병은 8월중 잦은 강우로 인해 발생확산 우려, 적기방제
- 꽃매미, 갈색날개매미충 등 정밀예찰 및 발견 시 즉시방제

주·요·병·해·충·방·제·요·령

❖ 벼 이삭도열병(예보)

- 8월중 잦은 강우로 중만생종과 동해안 2모작 벼에 이삭도열병 발생이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오니 초기에 방제

※ 적용약제 : 후지왕, 키타진, 슈퍼왕, 과채단 등



【 이삭도열병 】

❖ 콩 노린재류(예보)

-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, 가로줄노린재, 썩덩나무노린재 등은 콩을 가해하는 주요 노린재로 산림 및 주변의 다른 식물 등에서 증식한 후 콩 포장으로 비래되어 성충과 약충이 발생하는 시기이므로 콩의 생육단계를 보아 9월 상·중순경에 2차 방제 필요

※ 적용약제 : 하이캣트, 보스, 스톤네트, 유토피아 등

❖ 김장채소 병해충(예보)

- 벼룩잎벌레, 배추좀나방은 무·배추 어린잎에 구멍을 뚫어 피해를 주므로 발견 즉시 적용약제로 방제

※ 적용약제 : 델리게이트, 세베로, 만루포 등



【 벼룩잎벌레 】

- 배추무름병은 세균에 의한 병으로 온도가 높을 때 많이 발생하며 땅과 맞닿는 부분의 잎자루와 줄기부터 발병해서 결국 속까지 무르고 부패하니 적용약제로 7~10일 간격으로 살포

※ 적용약제 : 알뜨리, 한우물, 옹마루, 부라마이신 등

❖ 고추 탄저병 · 나방류(예보)

- 수확기에 접어든 고추는 8월중 잦은 비로인해 기상여건 악화로 탄저병 확산이 우려되므로 침투이행성약제로 방제

※ 탄저병 : 델란, 호리쿠어, 푸름이, 골든벨, 포름디 등



【 고추 탄저병 】

- 담배나방, 파밤나방, 담배거세미나방등 나방류 해충 발생이 많은 포장은 적용약제로 예방 위주 방제

※ 담배나방 : 알타코아, 파밤탄, 데시스 등



【 담배나방 피해 】

❖ 시설 원예작물 잣빛곰팡이병, 총채벌레(예보)

- 잣빛곰팡이병은 야간 온도가 낮고 과습할 때 발생이 많은 병으로 야간 보온관리와 한 낮의 환기관리를 잘 해야 예방 할 수 있음
- 수확이 끝난 시설 포장에서는 작물 잔재물, 주변 잡초 등 해충의 잠복처를 제거하여 담배가루이 · 총채벌레 등 해충이 다음 작기 작물재배 시 시설내로 침입하는 것을 예방

❖ 과수 주요 병해충(예보)

- 배 검은별무늬병은 9월 수확 이후 2차 감염이 예상되므로 발생이 많았던 과원에서는 추가방제 필요

※ 적용약제 : 빈나리, 매카니, 푸르겐, 푸름이, 보가드 등

- 포도 갈색무늬병은 8월 잦은 강우로 인해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오니 적기방제 철저

※ 적용약제 : 신바람, 델란, 캐스팅, 클릭, 그랑프리 등

- 포도 노균병은 9월 하순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, 매년 태풍 통과 후 발생이 급증하였으므로 농약사용 안전기준을 준수하여 적용약제로 방제



【 포도 노균병 】

※ 적용약제 : 포룸만, 균자비, 캐스팅, 아미스타 등

- 노린재류는 대부분 과수원 외부에서 약충 상태로 번식하고 과수원으로 날아오므로 과실위주로 자세히 살펴보고 발견되는 즉시 해충의 종류에 따라 발생초기에 적용약제 방제

※ 적용약제 : 술탄, 메이저, 스토네트, 오신, 세베로 등

❖ 최근 문제되는 돌발해충(예보)

- 꽃매미 성충이 산란을 위해 과수원으로 날아오는 시기로 수확이 끝난 농가는 산란하기 전에 방제하여 내년도 피해를 예방

※ 적용약제 : 타스타, 코사인, 스미치온, 아타라, 코니도, 메프치온 등

- 갈색날개매미충은 발생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, 가죽나무·두릅나무·사과·배·복숭아 등을 흡즙하고, 8~9월에는 과수원으로 이동하여 올해 나온 가지에 알을 낳으면서 가해하고 있으니 산림을 포함한 예찰을 철저히하여 발생이 확인되면 산란 전에 꽃매미 등과 함께 방제

(춘천기상대 제공)



기상전망 (9월)

<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날이 많겠음 >

주간별	평균기온	강수량
1주(9. 8~14)	평년(19.9℃)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음	평년(46.1mm)과 비슷하겠음
2주(9.15~21)	평년(18.4℃)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음	평년(39.1mm)과 비슷하겠음
3주(9.22~28)	평년(16.8℃)과 비슷하거나 낮겠음	평년(19.9mm)과 비슷하거나 적겠음
4주(9.29~10.5)	평년(15.2℃)보다 높거나 비슷하겠음	평년(15.1mm)보다 적거나 비슷하겠음

※ 날씨 예보는 전화 131번 (<http://gangwon.kma.go.kr>)